

I Q1. 엘리바이저 개발 동기는 무엇인가요?

개발 동기를 이야기 하자면, 12년 전(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모니터링 툴이 없어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알 수가 없어 장애 예방이나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모니터링 툴을 하나 둘씩 만들기 시작하여 시스템은 PSMON, 웹로직은 WLMonitor, 오라클 DB는 DBMON, 텍시도는 TXMON등의 모니터링 툴이 만들어 졌고, 상용 못지 않는 제품으로 인정받았었습니다.

엘리바이저 솔루션은 기존에 만들었던 모니터링 툴의 확장 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많은 성능관리솔루션들이 있지만, 12년 전에 만들었던 단순 모니터링 툴에도 있었던 기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동화”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직접 격어 보면서, 실무자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10년 넘게 고민하였고 그 결과가 엘리바이저 제품에 집약 되었습니다.

I Q2. 앞서 얘기한 자동화란 무엇인가요?

엘리바이저는 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각종 성능정보, 연계정보, 구성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벤트 라이프사이클로 실질적인 이벤트를 발생시켜 운영자에게 통보하는 장애 사전감지 체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시스템 이상징후 자동 예측을 통한 모니터링 및 관제 자동화, 실시간 자동 점검 및 통보 등의 운영관리 자동화 관리가 가능합니다.

I Q3. 모니터링 화면을 보지 말라고 한다면요?

네, 타사 제품은 화면을 보면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 야간, 주말, 휴일 등에는 모니터링 공백이 발생하여 장애 인지/대응이 어렵습니다.

엘리바이저는 앞서 말씀 드린 자동화 기능을 통하여 운영자가 모니터링 화면을 보지 않아도 시스템이 안녕한지(“정상인지”), 안녕하지 않은지(“문제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취약 시간에도 운영자는 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알 수 있고, 업무 시간에도 모니터링 화면을 보지 않아도 되므로, 업무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I Q4. 어떠한 문제든지 사전 감지해서 알려준다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OS영역의 물리적 관제 뿐만 아니라, WAS/DB 프로세스의 메모리 영역의 Hang 장애와 같은 논리적 관제까지 99.9% 이상의 감지가 가능합니다.

I Q5. 클라우드 환경도 지원하나요?

네, 지원합니다. 이미 N데이터센터의 G클라우드 환경에 다수 적용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Q6. WAS 담당자와 데이터베이스 담당자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요? 그 경계가 무엇이었나요?

WAS 담당자는 WAS에서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모니터링 및 분석은 가능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SQL은 처리 시간만 알 수 있고, SQL 수행 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솔루션은 WAS담당자가 문제 SQL에 대하여 클릭 한번 만으로 데이터베이스 성능정보로 연계되어 문제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되는 SQL에 대하여 URL, WA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식별이 가능합니다.

Q7. 엘리바이저는 성능이나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인가요?

네, 엘리바이저는 'N'데이터 센터내의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000대 이상의 서버에서 운영 중으로 성능 및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안전장치를 기본으로 설계하여, 운영 중 문제 발생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Q8. 엘리바이저 적용 시 시스템 부하는 어떤가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GS인증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WAS는 1%미만, 오라클 DB는 0.2%미만의 CPU 사용률이 증가하여 탁월한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Q9. 엘리바이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엘리바이저는 WAS, 오라클, 티베로, 큐브리드 등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시스템 등 총 5개의 제품 군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Q10. 단일 엘리바이저 콘솔로 다섯 가지 제품 군을 통합관리 한다면서요?

5가지 제품 군은 단일 엘리바이저 서버 프로세스 내에서 메모리를 공유하면서 제품간 성능데이터 상호 연계를 통하여 단일 화면에서 제품 군을 통합관리 합니다.

특히, 모든 제품의 데시보드 화면에 SMS(System Management System) 제품의 모든 성능데이터를 배치하여 통합관제가 가능합니다.

Q11. 엘리바이저 서버에서 몇 개까지 관리가 가능한가요?

네 권장 수집서버 사양 기준으로 단일 엘리바이저 프로세스에서 약 100개까지도 가능합니다. WAS의 트랜잭션 기준으로는 초당 1,000개도 무리 없이 처리 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같은 수집서버에서 엘리바이저 서버 프로세스 추가 구성을 권장합니다.

Q12. 보안 기능도 제공하나요?

네,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접근을 차단하고, 사용자 별 스레드/세션 제어, 이벤트/파라미터 등의 설정,정보조회 권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행 이력 관리를 통하여 감사가 가능합니다.

Q13. 화면 리프레시 없는 웹 UI로 사용이 매우 편리하다고요?

네, 기존 솔루션의 웹 화면은 메뉴를 선택 시 이전 화면이 선택한 화면으로 리프레시 되어 여러 화면을 동시에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다양한 메뉴를 동시에 탭바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메뉴 선택에 따른 화면 리프레시가 없습니다.

또한 다섯 가지 제품별 고유한 색깔을 통하여 어떤 제품의 화면인지 구분하여 줍니다.

Q14. 엘리바이저 수집서버의 지원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엘리바이저 서버는 모든 운영체제를 지원하지만 Windows와 Linux를 권장합니다.

이유는 성능DB로 사용하는 Oracle 11gR2 XE가 Windows와 Linux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고객 사에 별도의 성능데이터 전용 오라클 DB가 있는 경우와 수집서버와 성능DB를 분리할 경우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Q15. 엘리바이저 수집서버는 어느 정도의 사양이 필요한가요?

엘리바이저 서버는 2GHz이상의 쿼드코어, 8GB이상의 메모리, 500GB이상의 HDD정도면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Q16. WAS 성능데이터는 하루에 얼마 정도 쌓이나요?

하루 24시간 동안 처리된 트랜잭션이 평균 초당 100개(100TPS)였을 경우 약 500MB 정도 발생하며, 주로 트레이스 관련 데이터가 90%이상입니다.

트랜잭션이 주로 주간 시간대에 집중되기 때문에, 평균 100TPS는 피크타임에는 300TPS 이상일 가능성이 큼니다.

Q17. 성능데이터의 보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실시간 데이터는 10초 단위로 데시보드에 표현되며, 이를 분, 시간 단위로 통계화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저장된 성능데이터의 보관주기는 1분은 7일, 1시간 데이터는 1년이 기본이며, 성능데이터 종류별로 보관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18. 성능데이터를 빅데이터나 관리시스템으로 연동할 수 있나요?

제품별 성능데이터 및 이벤트, 구성정보, 연계 정보 등 모두 연동이 가능하며, 연동 방식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합니다.

Q19. 고객 사에 특화된 기능 커스터마이징도 지원하나요?

성능데이터 및 이벤트 연동에 대해서는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합니다.

그 외의 개선 요청 건은 연구소에서 검토 후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기능 확장하여 고객 사에 제공합니다. 이런 정책은 고객사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I Q20.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규모의 시스템 관리도 문제 없다면서요?

저희 제품은 시스템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면서 다양한 성능데이터를 추출 및 처리하는 경량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의 관리 콘솔에서 1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원활한 성능관리가 가능합니다.

‘N’ 데이터센터에서 약 1,000여대의 서버에 적용해 운영 중에 있으며, Gateway서버를 통한 이벤트 및 성능데이터를 집중시켜 휴대폰 문자 발송 및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연동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I Q21. 성능관리 솔루션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IT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산시스템은 WEB, WAS, DB의 3 Tier 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시스템은 급증하는 반면 고가의 성능관리 솔루션 때문에 일부 시스템에만 적용하여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능관리 솔루션은 모든 전산시스템이 적용 대상으로 상당히 큰 시장이지만, 도입 비용 문제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쳐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기업에서 부담 없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통합성능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I Q22.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현재 통합관계데시보드 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전반기 내에 릴리즈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개의 엘리바이저 서버의 성능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상상 속의 이상적인 모습을 현실화 시켜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Altibase, MS-SQL 등의 데이터베이스 제품군도 꾸준히 확장할 계획입니다.

I Q23.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저희 회사 사명은 첫째. “출근이 즐거운 직장” 둘째. “고객과 함께 만드는 제품”셋째. “미래 가치 창조.”로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지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개발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고객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제품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컴퓨터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스마트 IT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IT 서비스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은 날로 급증하고, 프로그램들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어, 최적의 I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능관리 솔루션이 필수 관리 톨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복잡해 지는 전산시스템 환경에서 원활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성능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성능관리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저희 성능관리 솔루션은 스마트 성능관리를 통하여 자동관계, 운영자동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아가 고객사의 가치창조에 이바지 하겠습니다.